

나주를 감동시킨 작은 무대 큰 울림 무지크 바움 ‘하우스 콘서트’ 100회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문화 공동체 무지크 바움(대표 조기홍)의 개지프레이즈다. 독일어로 ‘음악 나무’를 뜻하는 단체 이름처럼 무지크 바움은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나주에 클래식 음악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키워오고 있다.

2004년 담양 한빛 등 전국 대학교 투어를 시작하며 첫발을 내디딘 ‘무지크 바움’은 2006년부터 ‘하우스 콘서트’를 시작했다.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연주자들과 함께 어디든지 찾아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콘서트로 오는 3월 4일이면 어느새 ‘100회’를 맞는다.

하우스 콘서트는 지금까지 마을회관, 교회, 성당, 절, 찻집, 법원 등 다양한 곳에서 열렸다. 2013년부터는 나주시 금성관 바로 앞 카페 ‘에가체프’ 2층에서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중이다. 나주가 고향인 ‘엄마야 누나야’의 작곡가 안성현의 이름을 따 ‘안성현홀’로 이름 지은 공간은, 평상시에는 커피숍으로 이용되지만 콘서트가 열릴 때면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매회 60~80명이 찾아오는 음악회는 연주자들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멋진 분위기를 연출한

인구 10만 도시에 클래식 음악 씨앗 뿌리고 키워
마을회관·교회·성당·절·찻집·법원 등서 연주회
국내외 정상급 음악인 참여 ... ‘전국 연주회’도 진행
100회 콘서트 3월 4일 피아니스트 빈하르트 초청

다.

정식 공연장이 아닌, 소박한 공간이지만 이곳에는 많은 음악인들이 다녔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첼리스트 김창현·황윤정, 피아니스트 이수희, 박수용 재즈 퀸텟 등이다. 또 이종만·이후성·박재연으로 구성된 ‘우노 아니모 트리오’가 다녔으며 광주대 김정아 교수가 진행하는 ‘동물의 사육제’ 등 어린이 프로그램은 인기 연주회다.

모든 연주자들의 로망인 ‘전국 연주회’도 무지크 바움의 특색이다.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곡을 들려주는 전국 연주회를 진행중으로 지금까지 4차례 공연을 마쳤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의 무반주바이올린 독주곡 시리즈, 테너 김현식과 함께하는 슈베르트의 대표가곡 시리즈 등이

펼쳐졌으며 바흐의 첼로 독주를 위한 모음곡,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국 연주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의 영광’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100회 하우스 콘서트는 오는 3월 4일 오후 7시 30분 안성현음악홀에서 열린다.

이날은 특별한 연주자를 초청했다.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페터 폰 빈하르트다. 헝가리 출신으로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세계를 무대로 마스터클래스, 콩쿠르 심사위원,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다.

이번 음악회 연주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52번’, 거쉬윈의 ‘랩소디인 블루’,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페터 폰 빈하르트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무지크 바움 ‘하우스 콘서트’가 100회를 맞이했다. 사진은 95회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한 ‘우노 아니모 트리오’ 공연 모습.

등이다.

무지크 바움은 하우스 콘서트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나주안성현현대음악제는 나주를 음악도시로 만들기 위한 꿈을 키워가는 행사다. 또 다양한 레퍼토리로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음악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녀와 함께하는 클래식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초반에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관심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의는 클래식 전문가 안철씨가 맡고 있다.

미래의 음악가들을 위한 무대로 시작했다. 지난해 6월부터 ‘무지크 바움 쏘나무 콘서트’를 진행,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연주회를 마쳤다.

또 소속 단체로 (사)무지크바움 멤버오케스트라, (사)무지크바움 모던 앙상블, 무지크바움(이화) 유스오케스트라를 운영중이다.

티켓 가격 3만원. cafe.daum.net/na-jumusikbaum. 문의 010-6422-19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악방송 ‘백범일지’ 등 3·1절 특별 프로그램

광주국악방송이 3·1절을 맞아 3월 1일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전문 프로그램 ‘문형선의 남도 문화마실’(오전 11시~12시)은 화가 한희원의 소개로 일제강점기 화가로서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김홍식 화백의 삶을 되새겨 본다.

또 광주백범기념관 장선미 기획실장을 전하 연결해 다양한 3·1절 행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빛고를 상사다야’(오후 2시~4시)에서는 연해주 출신 소설가 김준의 동명 단편 소설을 장극 드라마로 만든 ‘나그네’를 방송한다.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 거점이었던 북만주를 무대로 독립군과 조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

하고 있는 어느 부부 간의 동포애를 맛깔스런 판소리와 연기로 풀어낸 작품이다. 3월3일까지 2부 코너 ‘라디오 문학극장’에서 방송된다.

그밖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낮 12시~오후 2시)의 ‘차 한잔, 시 한모금’ 코너에서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소개한다.

방송은 광주 FM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당터궁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개최...2018 광주비엔날레 카피 공모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18광주비엔날레 카피 공모 이벤트를 연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비엔날레 행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관람객 혼선을 줄이고 시민 참여형 홍보를 위한 목적이다.

이벤트는 3월10일까지 광주비엔날레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카피 문구를 댓글로 단 뒤, 카카오프러스 친구로 참여 완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광주비엔날레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다는 메시지를 간결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글자수 30자 내외 문구로 만들면 된다. 개최 공간 변화에 따른 기대감, 장점 등을 담아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3월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1등 20만원 상당 상품권(1명), 2등 5만원 상당 상품권(2명), 3등 5000원 상당 커피쿠폰(5명)을 제공한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 출간...일본 하루키 열풍

일본에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사진>의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최근 장편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가 출간되면서 일본 열도에 ‘역시 하루키’라는 말이 나돌면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의 한 서점 앞에는 책을 사기 위해 전날 밤부터 100여 명이 넘는 독자들이 줄을 섰다. 특히 이번 소설은 제목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어 기대감과 아울러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는 지난 2013년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후 4년 만에 나온 작품으로 모두 1·2권이 동시 출간됐다. 소설은 이혼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루키 작품 패턴과 유사해 보인다는 평이다. 다만 그림을 놓고 벌어지는 사건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깊어진 하루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하루키는 국내에도 만만치 않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이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누적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하루키는 10위권 내 1Q84(2위),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4위), ‘상실의 시대’(5위), ‘여자 없는 남자들’(7위) 등을 올렸다.

한편 문학출판계는 이번 ‘기사단장 죽이기’는 국내 출판시장을 고려하면 여름께 번역 출간을 점치고 있다. 그간 문학상상, 문학동네, 김영사 임프린트인 비채, 민음사 등에서 하루키의 책을 발간했다. 출판사들은 번역 판권을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7 야외상설브랜드공연창작지원사업’ 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 3월8일까지

광주문화재단이 ‘2017 야외상설브랜드공연창작지원사업’ 단체를 오는 3월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야외 공연장에서 상설 창작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연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1억7300만원이다. 브랜드공연(무용·연극·음악 등 5년 이

상 전문공연예술 단체)와 거리공연(마임·퍼포먼스·마술·저글링·인형극·마당극·가타 등 3년 이상 전문공연예술 단체)으로 나뉜다.

선정 단체는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단체를 선정하며

최소 3000만원~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3월 6~8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70-74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 새 끼 는 내가 먹 여 살 린 다 !

주영훈 YoungHoon Joo 김구라 Gura Kim 이한위 HanWi Lee

아제 감성 느와르
아반색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CHANNEL A